독서치료 연구의 전공영역별 연구행태 분석*

An Analysis of Research Behaviors in Bibliotherapy Study among 5 Fields

이 명 희 (Myeong-Hee Lee)**

목 차

1. 서 론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3.2 연구논문 분석의 기준
4. 연구결과 분석
   4.1 연구경향 분석결과
   4.2 연구논문의 내용분석 결과
   4.3 전공영역별 연구논문의 내용분석 결과
   4.4 프로그램 실시 연구논문의 내용분석 결과
   4.5 전공영역별 연구논문의 특이사항
5.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치료 연구의 보완점
6. 결론 및 제언

초 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치료 연구의 수준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관련된 학문영역별 독서치료 연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학술지에 수록된 130편의 연구논문을 5개 전공영역으로 나누어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대상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대 이후에 독서치료 연구가 도서관계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지만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의 다양화, 이론적 기반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보완점으로 독서치료 대상을 연령, 계층, 경험집단, 상황집단 등으로 확대하고, 토론이나 역할극, 놀이치료 등 독후활동을 병행하며, 다양한 진단검사 도구를 활용・해석하는 능력을 키울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고, 심리학적 이론과 독서치료 과정이론을 프로그램 구성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research behaviors of bibliotherapy studies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bibliotherapy study in the LIS. 130 articles of journals were divided into five major fields, and analyzed using major areas,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s, affiliation of authors, and participants. The results showed that bibliotherapy studies in LIS have been conducted rather broadly by the practitioners ever since the 2010s. However, diversification of research topics, research methods, and theoretical foundations are found to be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Based on the statistics, suggestions are made: to expand the target of bibliotherapy to various ages, classes, experience groups, and situation groups; to combine reading books with further activities such as discussion, role-play, and play therapy; to take advantage of a variety of diagnostic test tools and to utilize clinical treatments; to conduct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simultaneously in order to achieve the benefits.

키워드: 연구행태, 연구경향, 독서치료, 독서치료 연구
Research Behavior, Bibliotherapy, Bibliotherapy Study, Research Trend

---

* 본 연구는 2013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ehelee@smu.ac.kr)
논문접수일자: 2014년 1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4년 2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2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215-235, 201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1.215]

1. 서 론

지난 60년간 한국사회는 압축된 경제성장과 무한 경쟁사회 진입으로 경제생활은 향상되었지만 압축성장의 후유증도 심각하여 도덕성과 인성은 피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지속적으로 떠안고 있다. 이처럼 사회 속에 불안정이 증가함에 따라 마음을 치유하는 독서치료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독서치료 연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교육학 연구자들과 교사들에 의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징계받은 학생, 비행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장원영, 김재준 1976). 1980년대에는 병원 신경정신과와 병원도서관의 독서치료 실시 효과에 대한 논문들이 출현하였다(장귀녀 1985; 김태경 1985). 특히 장귀녀의 연구는 병원도서관에서 독서치료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도서관 서비스로의 적용방안을 제시한 논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관련 논문이 많이 출판되었으며(최선희 1997; 김욱준 1999), 2000년대에는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와 독서치료연구회에서 단행본 저술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부산대학교의 책정연(책으로 정신치료하는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체험적이고 치유적인 글쓰기를 통한 독서치료 분야 자료가 다수 발간되었다(김정근 2005).

2000년대 문헌정보학 독서치료 연구의 특색은 도서관에서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독서치료의 타당성을 제안하는 논문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구체적인 상황별 혹은 대상별 독서치료 목록이 한국도서관협회 등을 중심으로 발간되었다(한윤옥 2003). 그리고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체험적 독서' 또는 '치유적 독서'라는 이름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의 사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사서직의 직업적 자부심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현재 독서치료 연구는 문헌정보학, 교육학, 유·아동학, 심리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제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학문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헌정보학에서는 독서자료 제공에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독서치료의 심리학적 이론, 독서치료의 과정이론, 각종 진단평가 도구들, 치료자와 치료대상자의 특성과 행태, 독서치료에 수반되는 놀이치료, 표현예술치료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문헌정보학보다 일찍 독서치료 연구의 경험을 가진 심리학, 교육학, 유·아동학 연구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장점을 문헌정보학에서 적극 수용한다면 문헌정보학의 독서치료 연구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본 연구는 타 분야에서 수행된 독서치료 연구의 시사점을 문헌정보학 독서치료 연구에 접목함으로써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치료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고 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학술지에 수록된 독서치료 연구논문 내용을 문헌정보학, 교육학, 유·아동학, 심리학, 문학, 종교분야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려고 한다. 수집된 논문들의 구성요소와 주요내용을 영역별

로 분석・평가하여 문헌정보학 독서치료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2. 선행연구

독서치료 연구는 문헌정보학을 비롯하여 교육학, 심리학, 유・아동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문헌정보학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문헌정보학의 독서치료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향상, 학업부진, 사회성, 우울증, 대인관계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나 이 장에서는 일반적인 독서치료 연구가 아닌 연구동향에 관한 논문만 기술될 것이다.

황금숙(2005a; 2005b)은 현대사회에서 독서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내외 독서치료 자료를 단행본과 학위논문, 학술잡지 기사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별, 연도별, 학문영역별, 연구내용별로 분석하였다. 그는 국내연구가 꾸준히 행해지고 있으며, 문헌정보학에서 유・아동 대상 연구가 활발함을 보고하였다.

김갑선(2007)은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후, 문학이론과 심리학의 이론적 배경을 문헌정보학에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다양한 집단 대상의 독서치료, 양적연구와 더불어 정성연구의 필요성, 독서치료의 총체적 연구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정수연과 이명규(2011)는 초등학생 대상 임상・치료적 독서치료 과정을 연구하고, 독서치료 과정, 내담자 문제유형과 문제내용, 독서치료 활용자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독서치료 과정이론을 수용하였고, 심리・사회적 문제유형과 정신장애 문제유형에 활용된 도서를 제시하였다.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최태산 외(2006)는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2000년대 이후 대학교수와 석사학위 논문은 증가했으나 현장연구가 취약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연구내용에서 독서치료 성과 과정연구와 이론연구가 많으며, 질적연구를 주로 사용함을 발견하였다.

교육학 분야에서 인형숙(2008)은 어린이를 위한 독서치료 연구를 수행한 학위논문을 분석하였다.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학위논문을 연도별, 학문영역별, 대상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내 학술지 수록 독서치료 관련 논문으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를 검색하여 '독서치료'와 '독서요법' 용어가 주제어로 사용된 총 13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검색된 논문은 165편이지만 중복 게재된 논문을 제외한 130편을 분석하였으며, 발간연도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3.2 연구논문 분석의 기준

학술지에 게재된 독서치료 연구논문의 연구

경향 파악을 위하여 우선 연구자의 전공분야와 연구주제, 첫 연구자의 직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연구가 얼마나 다양한 전공영역에서 진행되는 지 살펴보았다. 또한, 사용된 연구방법, 통계분석 방법, 연구대상, 연구수행 단위, 연구내용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논문의 주요 구성요소의 특징들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공영역별 특징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치료 연구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논문의 분석을 위해 연도별, 전공분야, 연구주제, 연구내용의 유형, 연구대상, 연구수행 단위, 연구방법, 통계분석 방법, 첫 연구자의 직종 등을 조사하여 제반 특징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은 분석기준을 만들었다.

첫째, 독서치료 연구는 문헌정보학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는 학제적 주제이기 때문에 인접분야를 묶어 단일 전공으로 구분하였다. 전공분야는 선행연구(황금숙 2005; 김갑선 2007; 정수연, 이명규 2011)에서 사용한 구분을 참고하여 문헌정보학(사서교육, 독서교육 포함), 교육학(상담교육, 교육심리, 평생교육, 특수교육 포함), 유·아동학(유아교육, 아동학, 아동복지 포함), 심리학(상담심리, 복지상담, 재활심리 포함), 문학(국어교육 포함), 종교·기타(기독교, 불교, 복지학, 의학 등)로 구분하였다.

둘째, 연구주제를 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 정체성,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학업성취 및 학습부진(학습부진 및 학습동기, 학습태도 습관, 학습장애, 읽기부진), 사회성(사회부적응, 정서장애, 행동장애, ADHD, 자폐아동, 공격성), 비행(학교폭력, 비행청소년, 일진, 집단따돌림), 우울증(불안, 스트레스, 분노), 중독(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대인관계(수줍음, 발표불안, 강박증, 인간관계, 자기표현, 교우관계, 의사소통, 공감, 다문화 이해), 진로지도(직업, 꿈), 결손가정(한부모, 이혼가정, 시설아동,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기타(노년, 장애 등)로 구분하였다.

셋째, 연구내용의 유형을 이론, 효과검증, 개발적용, 준비·자료선정,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론연구에는 이론적 연구와 함께, 독서치료에 관련된 현장전문가(사서, 교사, 사회복지사 등)를 대상으로 독서치료의 인식도를 조사한 연구가 포함된다. 효과검증은 독서치료 과정을 설계하고 프로그램 실시 후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것들이다. 개발적용은 독서치료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했지만 통계적 검증 없이 수행된 연구를 말한다. 준비·자료선정은 자료선정과 목록제공 등이 포함된다.

넷째, 연구대상은 연령에 따라 유아, 초등생,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노인, 성인, 기타(전체)로 구분하였다.

다섯째, 연구 수행단위는 도서관,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종교기관, 시설기관, 복지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포함),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여섯째, 연구대상자 수는 1명, 2명, 3-5명 이하, 5-10명 이하, 10-20명 이하, 20-30명 이하, 30-50명 이하, 50-100명 이하, 100명 이상, 기타(없음)로 구분하였다.

일곱째,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실험연구, 사례조사, 관찰, 질문지, 면담, 내용분석, 질적연구, 기타로 구분하였다. 실험연구 등과 함께 참여자의 경험에 관한 다양한 정성적인 자료 분

석방법을 병행한 경우에는 정성적 연구방법도 단독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면접과 관찰 등을 사용했지만 자료처리방법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경우는 질적연구에 포함하였다.

여덟째, 통계분석방법은 기술통계, T검증, 비모수 통계(카이자승 검정 포함), 분산분석(공변량 포함), 요인분석, 회귀분석, 기타,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아홉째, 첫연구자의 소속 직종을 교수·강사, 연구원, 교사, 대학원생, 기업(민간단체 포함), 독서치료사, 사서, 기타로 구분하였다. 연구자의 소속 직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교사가 대학원생으로서 논문을 썼지만 ○○초등학교라고 소속을 분명히 밝힌 경우에는 교사에 분류하였다.

4. 연구결과 분석

4.1 연구경향 분석결과

4.1.1 연도별 연구논문 발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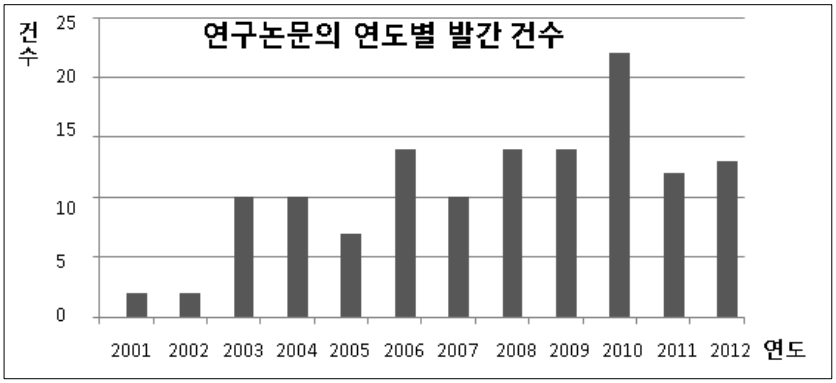
독서치료 분야에서 발간된 학술지 연구논문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30편이다. 2001년부터 소량의 연구가 시작되다가 2003년부터 10편 이상 발간되었으며 특히 2010년에는 22편(16.9%)이 발간되었다. 2006년부터 꾸준히 매년 10편 이상의 논문이 발간되어 이 분야 연구자들의 독서치료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알 수 있다(〈표 1〉, 〈그림 1〉 참조).

4.1.2 연구논문의 연구자 수

연구자가 단독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58.5%, 2명은 33.1%, 3명은 6.2%로서 과반 이상의 연

〈표 1〉 연구논문의 연도별 발간 현황

발간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건수	2	2	10	10	7	14	10	14	14	22	12	13	130
비율(%)	1.5	1.5	7.7	7.7	5.4	10.8	7.7	10.8	10.8	16.9	9.2	10.0	100.0



〈그림 1〉 연구논문의 연도별 발간 현황

구는 단독연구로 진행되고 있으나 2인 연구자의 공동연구도 33.1%에 달하여 90% 이상이 1-2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표 2〉 참조).

4.1.3 첫 번째 연구자의 소속

첫 번째 연구자의 소속은 교수・강사가 53.8%, 대학원생 23.1%, 교사 3.9%, 기업과 독서치료사가 각각 2.3%의 순서로 나타나 약 77%의 연구가 교수・강사 및 대학원생에 의해 수행되었다(〈표 3〉 참조). 독서치료 연구가 현장실무자보다는 연구자 중심으로 진행된 이 결과는 최태산 외(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장차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현장전문가에 의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1.4 첫 번째 연구자의 전공분야

〈표 4〉에서 첫 번째 연구자의 전공분야는 문헌정보학 39.3%, 유・아동학 22.4%, 문학과 심리학, 교육학이 각각 11.5%로 나타나 약 40%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수행되었지만 유・아동학 분야의 연구도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4.2 연구논문의 내용분석 결과

4.2.1 연구논문의 내용 유형

연구논문의 내용유형은 〈표 5〉에서 효과검증 44.6%, 이론과 개발적용이 각각 15.4%, 준비・자료선정 13.8%, 기타 10.8%로 나타나 과반에 가까운 연구가 프로그램 실시 후 계량적 분석으로 효과를 검증한 양적연구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효과검증 연구는 참여자 선정, 자료선정 및 연계 활동 등 독서치료의 전 과정을 설계하여 실시한 후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증한 연구로서 실험연구가 대표적인 예이다.

〈표 2〉 연구논문의 연구자 수

연구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계
건수	76	43	8	2	1	130
비율(%)	58.5	33.1	6.2	1.5	0.7	100.0

〈표 3〉 첫 번째 연구자의 소속

첫연구자소속	교수・강사	대학원생	연구원	교사	기업	독서치료사	사서	기타	합계
건수	70	30	16	5	3	3	2	1	130
비율(%)	53.8	23.1	12.3	3.9	2.3	2.3	1.5	0.8	100.0

〈표 4〉 첫 번째 연구자의 전공분야

전공분야	문헌정보학	유・아동학	문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기타	합계
건수	51	29	15	15	15	5	130
비율(%)	39.3	22.4	11.5	11.5	11.5	3.8	100.0

〈표 5〉 연구논문의 내용 유형

내용유형	효과검증	이론	개발적용	준비・자료선정	기타	계
건수	58	20	20	18	14	130
비율(%)	44.6	15.4	15.4	13.8	10.8	100.0

4.2.2 연구주제

연구주제는 자아존중감 23.0%, 우울증 10.8%, 사회성 7.7%, 대인관계 6.2%, 결손가정 6.2%, 학업성취 4.6%의 순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과 우울증 관련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비행과 진로지도 연구는 빈약한 것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이중 기타 50건(38.5%)은 실제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독서치료에 관한 문헌연구, 이론연구, 자료구성 등을 포함한 것이다.

4.2.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중복 사용된 경우를 포함하여 149건이다. 〈표 7〉에서 연구방법은 실험연구 32.3%, 문헌연구 21.5%, 질적연구 20.1%, 사례연구 6.0%, 질문지 4.0% 순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테스트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실험연구는 독서치료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서 전체 연구의 약 1/3이 실험연구로 수행되었다. 한편 독서치료자의 관찰, 심층면접, 개별 상담자료를 분석한 질적연구도 20.1%에 달하고 있다.

4.2.4 통계분석 방법

〈표 8〉에서 약 50%의 연구가 통계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T검정 21.5%, 분산분석 15.4%, 기술통계 8.5%, 비모수통계 2.3%의 순서로 나타났다. 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문헌연구나 자료선정 등 연구의 속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 과학적 연구로 인정되는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한 양적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표 6〉 연구주제

연구주제	자아존중감	우울증	사회성	대인관계	결손가정	학업성취	비행	진로지도	기타	합계
건수	30	14	10	8	8	6	2	2	50	130
비율(%)	23.0	10.8	7.7	6.2	6.2	4.6	1.5	1.5	38.5	100.0

〈표 7〉 연구방법

연구방법	실험연구	문헌연구	질적연구	사례연구	질문지	관찰	내용분석	면담	기타	계
건수	48	32	30	9	6	4	3	2	15	149*
비율(%)	32.3	21.5	20.1	6.0	4.0	2.7	2.0	1.3	10.1	100.0

* 복수응답 허용

〈표 8〉 통계분석방법

구분	기술통계	T검정	비모수	분산분석	요인분석	만 휘트니	기타	없음	계
건수	11	28	3	20	1	1	2	64	130
비율(%)	8.5	21.5	2.3	15.4	0.8	0.8	1.5	49.2	100.0

4.3 전공영역별 연구논문의 내용분석 결과

4.3.1 전공영역별 학회지의 연구논문 수록 현황

전공별 학회지를 〈표 9〉에서 살펴보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4건(10.8%), 독서치료연구 13건(1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3건(10.0%), 독서문화연구 11건(8.5%), 한국비블리아학회지 6건(4.6%), 상담학연구 5건(3.8%), 문학치료연구와 초등교육연구, 놀이치료연구가 각각 4건(3.1%)으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지가 많은 논문을 산출하고 있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학제적으로 연구가 수행됨을 알 수 있다.

4.3.2 전공영역별 연구자 수

〈표 10〉에서 문헌정보학, 문학, 종교・기타에서는 1인 연구가 많은 반면에 교육학과 유・아동학, 심리학에서는 2인 이상의 공동연구가 많고, 55.2%의 유・아동학 논문은 2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인문학적 속성을 가진 문헌정보학, 문학, 종교・기타는 단독연구가 많은데 비해 사회과학적 속성을 가진 교육학, 유・아동학, 심리학에서는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4.3.3 전공영역별 연구방법

〈표 11〉에서 실험연구는 교육학 42.1%, 문학 37.5%, 심리학 33.3%의 순서로 많이 수행되었으며, 질적연구는 종교・기타 33.3%, 문학 25.0%, 문헌정보학 20.7%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문헌정보학과 교육학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심리학(13.3%)과 문

〈표 9〉 전공영역별 학회지의 연구논문 수록 현황

전공영역	학회지명 건수(%)	
문헌정보학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4건(10.8%)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6건(4.6%) • 디지틀도서관 2건(1.5%)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3건(10.0%) • 정보관리학회지 2건(1.5%)
교육학	• 초등교육연구 4건(3.1%)	• 홀리스틱교육연구 2건(1.5%)
유・아동학	• 아동학회지 2건(1.5%) •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건(1.5%)	• 놀이치료연구 4건(3.1%) •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건(1.5%)
심리학	• 상담학연구 5건(3.8%) • 정서행동장애연구 2건(1.5%)	• 심리행동연구 2건(1.5%)
문학	• 독서치료연구 13건(10.0%) • 문학치료연구 4건(3.1%) • 우리말교육현장연구 2건(1.5%)	• 독서문화연구 11건(8.5%) •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건(1.5%)

〈표 10〉 전공영역별 연구자 수

전공 연구자수	문헌정보학 건수(비율)	교육학 건수(비율)	유·아동학 건수(비율)	심리학 건수(비율)	문학 건수(비율)	종교·기타 건수(비율)
1명	39(76.5)	6(40.0)	8(27.6)	7(46.7)	12(80.0)	4(80.0)
2명	12(23.5)	5(33.3)	16(55.2)	7(46.7)	3(20.0)	-
3명	-	3(20.0)	3(10.4)	1(6.6)	-	1(20.0)
4명	-	1(6.7)	1(3.4)	-	-	-
5명	-	-	1(3.4)	-	-	-
계	51(100.0)	15(100.0)	29(100.0)	15(100.0)	15(100.0)	5(100.0)

〈표 11〉 전공영역별 연구방법

연구방법	문헌정보학 건수(비율)	교육학 건수(비율)	유·아동학 건수(비율)	심리학 건수(비율)	문학 건수(비율)	종교·기타 건수(비율)
문헌연구	13(22.4)	3(15.7)	8(25.0)	4(26.7)	3(18.8)	1(11.1)
실험연구	16(27.6)	8(42.1)	10(31.2)	5(33.3)	6(37.5)	3(33.3)
사례조사	4(6.9)	1(5.3)	-	2(13.3)	2(12.5)	-
관찰	2(3.4)	1(5.3)	1(3.1)	-	-	-
질문지	3(5.2)	1(5.3)	1(3.1)	1(6.7)	-	-
내용분석	3(5.2)	-	-	-	-	-
면담	-	1(5.3)	-	-	-	1(11.1)
질적연구	12(20.7)	3(15.7)	6(18.8)	2(13.3)	4(25.0)	3(33.3)
기타	5(8.6)	1(5.3)	6(18.8)	1(6.7)	1(6.2)	1(11.1)
계	58(100.0)	19(100.0)	32(100.0)	15(100.0)	16(100.0)	9(100.0)

학(12.5%)은 사례조사를, 심리학(26.7%), 유아동학(25.0%), 문헌정보학(22.4%)은 문헌연구를 많이 사용하였다.

4.3.4 전공영역별 통계분석 방법

〈표 12〉의 전공영역별 통계분석 방법에서 T 검정은 문학, 심리학, 문헌정보학 에서 자주 사용되었으며, 교육학과 유·아동학에서는 분산분석을 많이 사용하였다. 기술통계는 문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4.3.5 전공영역별 연구내용 유형

전공영역별 연구내용 유형에서 효과검증은 종교·기타 80.0%, 문학 60.0%, 교육학 53.3%, 심리학 46.7%의 순서로 높으며, 이론은 유·아동학(31.0%), 문헌정보학(15.7%)에서 매우 높고 준비·자료선정은 교육학(26.7%), 심리학(20.0%), 문헌정보학(15.7%)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준비·자료선정의 비율이 높은 것은 각종 진단검사를 비롯한 측정도구 개발과 관련 있으며, 문헌정보학에서는 자료선정, 목록제공 등과 관련 있어 보인다.

〈표 12〉 전공영역별 통계분석 방법

구분	문헌정보학 건수(비율)	교육학 건수(비율)	유·아동학 건수(비율)	심리학 건수(비율)	문학 건수(비율)	종교·기타 건수(비율)
기술통계	4(7.8)	1(6.7)	1(3.4)	2(13.3)	3(20.0)	-
T검정	10(19.6)	2(13.3)	5(17.3)	3(20.0)	4(26.7)	4(80.0)
비모수	1(2.0)	1(6.7)	1(3.4)	-	-	-
분산분석	5((9.8)	5(33.3)	5(17.3)	2(13.3)	2(13.3)	1(20.0)
요인분석	1(2.0)	-	-	-	-	-
만휘트니	-	-	1(3.4)	-	-	-
기타	-	-	2(6.9)	-	-	-
없음	30(58.8)	6(40.0)	14(48.3)	8(53.3)	6(40.0)	-
계	51(100.0)	15(100.0)	29(100.0)	15(100.0)	15(100.0)	5(100.0)

〈표 13〉 전공영역별 연구내용 유형

구분	문헌정보학 건수(비율)	교육학 건수(비율)	유·아동학 건수(비율)	심리학 건수(비율)	문학 건수(비율)	종교·기타 건수(비율)
이론	8(15.7)	1(6.7)	9(31.0)	1(6.7)	1(6.7)	-
효과검증	20(39.2)	8(53.3)	10(34.5)	7(46.7)	9(60.0)	4(80.0)
개발적용	10(19.6)	2(13.3)	2(6.9)	2(13.3)	3(20.0)	1(20.0)
준비·자료선정	8(15.7)	4(26.7)	3(10.3)	3(20.0)	-	-
기타	5(9.8)	-	5(17.3)	2(13.3)	2(13.3)	-
계	51(100.0)	15(100.0)	29(100.0)	15(100.0)	15(100.0)	5(100.0)

4.4 프로그램 실시 연구논문의 내용분석 결과

4.4.1 연구 주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84건의 논문을 〈표 14〉에서 주제별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34.5%, 우울증 16.7%, 사회성 11.9%, 대인관계와 결손가정이 각각 9.5%, 학업성취 7.1% 순이다. 그러나 비행과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여 이 주제들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주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왕따문제, 비행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평생직업관이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과 함께 진로지도를 통한 직업 선택은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들이다.

〈표 14〉 연구 주제

연구주제	자아존중감	우울증	사회성	대인관계	결손가정	학업성취	비행	진로지도	기타	합계
건수	29	14	10	8	8	6	2	2	5	84
비율(%)	34.5	16.7	11.9	9.5	9.5	7.1	2.4	2.4	6.0	100.0

4.4.2 전공영역별 연구주제

〈표 15〉에서 심리학과 종교・기타 주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자아존중감의 비율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문헌정보학(15.2%)과 교육학(16.7%)에서 결손가정의 비율이 높았다. 심리학(44.5%)과 종교・기타(60.0%)에서는 우울증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유・아동학(35.7%)과 문학(18.3%)에서는 사회성 연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심리학과 종교・기타에서 우울증 비율이 높은 것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심리학과 영성을 탐구하는 종교의 특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서치료의 역사에서 유・아동학은 문학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이 두 영역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가 출생하여 가정에서 사회로 진입하는 첫 단계가 영・유아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성 관련 연구가 두 전공에서 많이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문헌정보학에서는 비행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장차 비행 분야에서도 다양한 발달적/임상적 연구가 진행되고, 진로지도, 학업성취, 사회성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4.3 연구수행 단위

연구수행 단위를 〈표 16〉에서 살펴보면, 학교 39.3%, 도서관 21.4%, 종교기관 11.9%, 유치원 10.7%, 기타 9.5%, 시설기관 4.8%의 순서로 나타나 60% 이상의 연구가 학교와 도서관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종교기관(11.9%)의 독서치료 연구도 목회상담이나 영성훈련과 함께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5〉 전공영역별 연구주제

구분	문헌정보학 건수(비율)	교육학 건수(비율)	유・아동학 건수(비율)	심리학 건수(비율)	문학 건수(비율)	종교・기타 건수(비율)
자아존중감	14(42.4)	5(41.7)	5(35.7)	1(11.1)	3(27.2)	1(20.0)
학업성취	1(3.0)	1(8.3)	2(14.2)	1(11.1)	1(9.1)	-
사회성	2(6.1)	-	5(35.7)	1(11.1)	2(18.2)	-
우울증	4(12.1)	-	1(7.2)	4(44.5)	2(18.2)	3(60.0)
대인관계	4(12.1)	1(8.3)	1(7.2)	1(11.1)	1(9.1)	-
진로지도	1(3.0)	-	-	-	1(9.1)	-
비행	-	1(8.3)	-	-	1(9.1)	-
결손가정	5(15.2)	2(16.7)	-	1(11.1)	-	-
기타	2(6.1)	2(16.7)	-	-	-	1(20.0)
계	33(100.0)	12(100.0)	14(100.0)	9(100.0)	11(100.0)	5(100.0)

〈표 16〉 연구수행 단위

수행단위	학교	도서관	유치원	시설기관	종교기관	복지관	기타	계
건수	33	18	9	4	10	2	8	84
비율(%)	39.3	21.4	10.7	4.8	11.9	2.4	9.5	100.0

4.4.4 전공영역별 연구수행 단위

〈표 17〉에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학교와 도서관이 연구수행 단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문학(45.4%)과 문헌정보학(12.1%)의 상당한 연구가 종교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육학 연구는 모든 연구수행 단위에서, 유·아동학 연구는 학문의 특성상 유치원에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4.4.5 연구대상자 수

연구대상자 수는 30-49명이 16%, 20-29명이 17.9%, 5-9명이 16.7%, 10-19명이 13.1%의 순서로 나타나 약 50%의 연구에서 20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약 13%의 연구에서는 1-2명의 소수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개별지도보다는 20명 이상의 집단지도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다(〈표 18〉 참조).

4.4.6 전공영역별 연구대상자 수

〈표 19〉에서 문헌정보학과 유·아동학 분야에서는 1명부터 100명 이상까지 다양한 숫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교육학과 종교·기타 분야에서는 다수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심리학에서는 과반 이상 연구가 10명 미만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문학에서 50명 이상 대상으로 연구된 것은 없었다. 인문학에 속하는 문학과,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에서는 개별연구가 많으나 사회과학 분야인 교육학에서는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종교분야에서도 집단 대상 프로그램이 다수 수행되었다.

4.4.7 연구대상

〈표 20〉에서 복수응답을 허용한 연구대상은 103건이고, 초등생 35.0%, 청소년 17.5%, 대학

〈표 17〉 전공영역별 연구수행 단위

구분	문헌정보학 건수(비율)	교육학 건수(비율)	유·아동학 건수(비율)	심리학 건수(비율)	문학 건수(비율)	종교·기타 건수(비율)
도서관	6(18.2)	2(16.7)	3(21.4)	2(22.2)	4(36.4)	1(20.0)
학교	18(54.5)	4(33.4)	6(42.9)	4(44.4)	-	1(20.0)
시설기관	-	1(8.3)	2(14.3)	-	1(11.1)	-
유치원	3(9.1)	2(16.7)	2(14.3)	1(11.2)	1(11.1)	-
종교기관	4(12.1)	1(8.3)	-	-	5(45.4)	-
복지관	-	1(8.3)	-	-	-	1(20.0)
기타	2(6.1)	1(8.3)	1(7.1)	2(22.2)	-	2(40.0)
계	33(100.0)	12(100.0)	14(100.0)	9(100.0)	11(100.0)	5(100.0)

〈표 18〉 연구대상자 수

대상자수	1명	2명	3-4명	5-9명	10-19명	20-29명	30-49명	50-99명	100명 이상	계
건수	8	3	6	14	11	15	16	5	6	84
비율(%)	9.5	3.6	7.1	16.7	13.1	17.9	19.0	6.0	7.1	100.0

〈표 19〉 전공영역별 연구대상자 수

	문헌정보학 건수(비율)	교육학 건수(비율)	유·아동학 건수(비율)	심리학 건수(비율)	문학 건수(비율)	종교·기타 건수(비율)
1명	3(9.1)	-	3(21.4)	1(11.1)	1(9.1)	-
2명	2(6.1)	-	-	-	1(9.1)	-
3-4명	-	2(16.7)	-	2(22.3)	2(18.2)	-
5-9명	7(21.2)	2(16.7)	1(7.1)	2(22.3)	1(9.0)	1(20.0)
10-19명	4(12.0)	2(16.7)	2(14.3)	1(11.1)	2(18.2)	
20-29명	6(18.2)	1(8.2)	4(28.7)	1(11.1)	2(18.2)	1(20.0)
30-49명	7(21.2)	3(25.0)	2(14.3)	1(11.1)	2(18.2)	1(20.0)
50-99명	2(6.1)	-	1(7.1)	1(11.1)	-	1(20.0)
100명 이상	2(6.1)	2(16.7)	1(7.1)	-	-	1(20.0)
계	33(100.0)	12(100.0)	14(100.0)	9(100.0)	11(100.0)	5(100.0)

〈표 20〉 연구대상

연구대상	유치원생	초등생	청소년	대학생	성인	주부	노인	계
건수	9	36	18	14	7	9	10	103*
비율(%)	8.7	35.0	17.5	13.6	6.8	8.7	9.7	100.0

* 복수응답 가능

〈표 21〉 전공영역별 연구대상

구분	문헌정보학	교육학	유·아동학	심리학	문학	종교·기타
유치원생	3(7.1)	2(13.3)	2(10.5)	1(11.1)	1(7.7)	-
초등생	14(33.3)	4(26.6)	9(47.4)	3(33.3)	4(30.7)	2(40.0)
청소년	7(16.8)	1(6.7)	3(15.8)	1(11.1)	5(38.5)	1(20.0)
대학생	8(19.0)	3(20.0)	1(5.3)	1(11.1)	1(7.7)	-
성인	5(11.9)	-	2(10.5)	-	-	-
주부	3(7.1)	-	2(10.5)	2(22.3)	2(15.4)	-
노인	2(4.8)	5(33.4)	-	1(11.1)	-	2(40.0)
계	42(100.0)	15(100.0)	19(100.0)	9(100.0)	13(100.0)	5(100.0)

생 13.6%, 노인 9.7%, 유치원생과 주부가 각각 8.7%의 순서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수치이며,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초등생 대상 연구가 가장 많았으나(최태산 외 2006; 김갑선 2007; 정수연, 이명규 2011), 노인과 주부 대상 연구가 상당수 진행된 것은 독서치료 대상자가 초등생을 벗어나 점차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4.4.8 전공영역별 연구대상

〈표 21〉에서 초등생 대상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나, 문학(38.5%)에서는 중고생인 청소년 대상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노인 대상 연구는 교육학(33.4%)과 종교・기타(40.4%)에서 활발하며, 심리학(22.3%)과 문학(15.4%)에서는 주부 대상 연구가, 그리고 문헌정보학(11.9%)과 유・아동학(10.5%)에서는 성인 대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유・아동학에서 성인 대상 연구가 활발한 것은 유・아동과 모친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4.5 전공영역별 연구논문의 특이사항

4.5.1 문헌정보학 분야

문헌정보학 분야(사서교육, 문헌정보교육, 독서교육 포함)에서는 총 51편의 논문이 생산되었으며, 그 중 33편은 프로그램 실시 논문이다. 타 영역에 비해서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비롯한 대표적인 학술지에 고르게 논문이 나타나며,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에서 한 쪽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프로그램 실시 논문의 주제도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나타났지만 비행, 사회성, 학업성취, 진로지도 주제의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연구는 활발하지만 성인, 주부, 노인 대상의 연구는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연구는 주로 이론연구와 사례 중심의 개별연구에 국한되다가 점차 효과측정 연구와 실험연구 방법으로 바뀌고 있으나 아직도 타 영역에 비하면 실험연구(27.6%)비율이 낮아서 연구방법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에 의한 질적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질적연구 방법(20.7%)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통계분석 방법이 없는 경우가 58.8%로, 이 수치는 인문학인 문학이나 심지어 종교보다 높은 수치이다. 독서치료 관련 타 전공영역에서 문헌정보학 연구의 비과학성을 비판하는 근거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서 문헌정보학에서도 객관적인 과학적 통계방법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내용 유형에 있어서 프로그램 실시와 이에 따른 효과검증과 개발적용 유형이 약 60%에 달하고 있어서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현장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 실시가 매우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4.5.2 교육학 분야

교육학 분야(상담교육, 교육심리, 평생교육, 특수교육 포함) 연구논문은 15건이며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는 12건이다. 교육학 분야에서 자주 사용된 연구방법은 실험연구(42.1%)로서 전공영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분석방법에서도 모수통계인 T검정과 분산분석을 많이 사용하였다. 교육학 분야의 실험연구는 대개 심리테스트와 진단검사 등 정교한 측정도구와 함께 사용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험연구 형태로 수행된 독서치료의 효과검증(53.3%)은 모든 전공영역 중 가장 높다. 교육학에서는 자아존중감(41.7%)과 함께 비행, 결손가정, 학업성취 연구가 많은데, 이들은 문제행동 학생의 인성치료, 생활지도, 정서교육으로 비행을 예방하고,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학업곤란, 왕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과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모든 연구수행 단위를 다 적용하였지만, 학

교와 더불어 시설기관, 복지관, 종교기관 등 다양한 연구수행 단위를 가지고 있어서 교육학 분야 독서치료 연구가 학교를 벗어나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대상의 발달적 혹은 임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사항으로 교육학에서는 초등생(26.6%) 못지않게 노인(33.4%)과 대학생(20.0%) 대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증가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평생교육 또는 성인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5.3 유・아동학 분야

유・아동학(유아교육, 아동학, 아동가족학, 아동복지 포함) 분야 연구논문은 29건이며 프로그램을 실시한 논문은 14건으로, 독서치료의 오랜 역사를 가진 유・아동학 분야에서 많은 논문이 생산되었다. 유・아동학에서는 주로 유치원생(10.5%)과 초등생(47.4%)을 대상으로 독서치료의 효과검증(34.5%)과 이론연구(31.0%)가 우세하며, 연구방법에서는 실험연구(31.2%)와 문헌연구(25.0%)가 자주 사용되었다. 유・아동학에서 초등생 대상 연구가 유아 대상 연구보다 더 많은 것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선상에서 사회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초등생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35.7%)과 함께, 사회성(35.7%) 관련 주제가 가장 많은 것은 아동이 가정을 떠나 학교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관계형성을 맺는 것을 배우는 시기와 관련되는 연구가 아닌가 생각된다. 모든 전공 중에서 2인 이상의 공동연구가 가장 활발한 분야로서, 이는 유치원 등에 근무하는 현장전문가와 대학의 이론연구자의 합동연구가 활발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4.5.4 심리학 분야

심리학(상담심리, 복지상담, 재활심리 포함) 분야 연구논문은 15건이며, 프로그램을 실시한 논문은 9건이다. 자아존중감 연구가 많이 수행된 다른 영역과는 달리 심리학에서는 우울증(44.5%)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는데, 이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심리학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독서치료의 효과검증 논문이 47.6%이고, 준비・자료선정 논문이 20.2%로 매우 높은 것은 표준검사지 등의 측정도구와 관련있는 것 같다. 연구방법에서 실험연구(33.3%)와 함께 문헌연구(26.7%)가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의외이며, 통계분석방법에서 통계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53.3%)이 가장 높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결과는 엄격한 실험연구와 통계분석 절차를 거치는 대표적 연구가 심리학 연구라는 종래의 인식을 뒤집는 결과로서 독서치료 연구에서는 정성연구를 더 많이 사용하는지 추후 연구가 기대된다.

4.5.5 문학 분야

문학(국어교육 포함)분야 연구논문은 15건이며, 프로그램을 실시한 논문은 11건이다. 자아존중감(27.3%) 연구에 이어 사회성(18.3%)과 우울증(18.3%) 연구가 자주 수행되었다. 인문학에 속하는 문학에서 효과검증 연구(60.0%)가 높은 것은 의외이며, 다른 전공과 달리 문학에서는 청소년 대상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학생들에게 문학을 이용한 독서치료가 적절하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연구방법에서 실험연구(37.5%) 다음으로 질적연구(25.0%)도 매우 높아서 프로그램 개발, 사례분석, 이론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다른 영역에서는 학교 대상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나 문학분야에서는 종교기관(45.4%)과 도서관(36.4%) 대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문학치료 전문가들이 도서관과 종교기관에서 독서치료 강좌를 빈번히 개설하는 것으로 보인다.

4.5.6 종교・기타 분야

종교분야(기독교, 불교, 사회복지학, 의학 등)에서는 교화적 목적 혹은 기독교 상담심리학의 일환으로 5건의 독서치료 연구가 모두 프로그램으로 실시되었다. 비록 적은 양이나 우울증 연구(60.0%)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찾아오는 우울증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종교적 영성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우울증 환자의 행동변화를 위한 임상적 독서치료의 효과연구(80.0%)가 높고, 주로 집단연구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5.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치료 연구의 보완점

독서자료를 매개로 하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치료는 1980년대의 초창기를 거쳐 2010년대에는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 현장사례와 실무지식을 갖춘 사서 주도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학 중심의 이론적 연구도 꾸준히 계속되어 문헌정보학의 독서치료는 현장과 이론 사이의 선순환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치료 연구력을 심화・확대하기 위해서는 타 분야 독서치료 연구의 강점을 적극 수용・보완해야 하며, 보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초등생 위주로 이루어지는 독서치료 대상을 다양한 연령, 계층, 경험집단, 상황집단 등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비행청소년의 폭력성, 명예퇴직 성인남성의 우울증, 다문화가정의 왕따, 조손가정 아동의 정서장애, 독거노인의 정신문제 등 다양한 연령별, 계층별, 상황별 집단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치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후속으로 대상자의 독서수준 및 흥미를 고려한 연령별, 계층별, 상황별 독서치료용 프로그램 구성과 자료목록 발간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치료는 주로 독서자료를 매개로 한 독서활동 위주로 진행되는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토론이나 역할극, 놀이치료, 시치료, 그림치료 등 독후활동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추후활동을 개발하고 독서치료 프로그램 지도안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상자는 책에서 받은 인상을 이야기하거나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된다. 독서치료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강조한 Herbert(1991)는 독서치료시 독서자료 이외에 토론이나 역할놀이, 창의적 문제해결 활동을 통해 읽은 자료로부터 통찰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현희 2004에서 재인용). 본 논문에서도 문헌정보학보다 교육학, 심리학, 유・아동학 등에서 다양한 독후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문헌정보학에서 사용되는 진단검사용 측정도구는 자아존중감 검사 등 소수의 측정도구에 한정되어 있는데, 대상자의 정신문제 유형의 진단을 위해 검증된 다양한 진단검사 도구를 적극 활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 임상치료 등에 활용해야 한다. 진단검사를 비롯한 각종 측정도구는 심리학과 교육학, 유·아동학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MBTI 성격유형검사,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를 비롯한 전통적인 심리검사 이외에 의사소통진단검사, 사회성숙도진단검사, 도덕성진단검사, 부모자녀친밀감검사, 유아애착안정성검사, 다중지능검사, 홀랜드 진로발달검사 등 다양한 검사도구가 상황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

넷째, 독서치료의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독서치료 결과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의 변화를 밝혀내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양적으로 측정된 독서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현재의 연구는 독서치료 경험 이면에 숨겨진 대상자들의 심리, 정서적인 상태 등 심층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의 변화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적연구와 함께,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등의 전통적인 질적연구방법 외에 현상학적, 생애사적, 문화기술지적, 담론분석 등 다양한 질적연구 방법의 접목이 필요하다.

다섯째, 독서치료는 정신분석이론, 게스탈트 이론, 사회학습이론 등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며, 이들은 독서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기반을 제공해 주므로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치료 프로그램 실시 과정에서 이들을 적극 적용하여 현장과 이론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실상 문헌정보학은 이들 이론에 대한 이해가 취약하기 때문에 심리학과 문학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심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신분석 이론은 대상자와 치료자간의 상호작용 과정 중에 발생하는 동일시, 전이, 카타르시스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아들러 학파의 심리학 이론은 대상자와 치료자 사이의 친밀감을 형성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라포 형성'의 근거가 된다. 치료자가 알고 있는 것들을 대상자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스탈트 이론은 대상자의 역할극 참여의 근거를 제공한다. 타인의 행동 관찰과 모방을 주장하는 사회학습 이론은 대상자가 책속의 등장인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델링하는 것을 도와준다. 집단상담 이론은 집단상담의 상호교류를 통해 개인을 성장·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치료 연구에서도 심리학적 이론을 적극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탄탄한 이론적 바탕에 근거한 현장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독서치료 과정이론을 독서치료 프로그램 구성에 적극 반영하여 대상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과정 및 단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수연과 이명규(2011)의 논문은 독서치료 과정연구를 소개하고 있는데, Doll & Doll(Doll and Doll 1997)의 독서치료의 5단계 모델은 준비단계, 자료선택 단계, 책 소개 단계, 이해를 돕는 단계, 후속조치와 평가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Hynes and Hynes-Berry(Hynes and Hynes-Berry 1994; 김현희 외 2010, 103에서 재인용)의 독서치료 과정은 인식, 고찰, 병치, 자기적용의 4단계를 거친다. 또한, Mazza

의 독서치료 과정이론은 지지단계, 통각단계, 행동단계, 통합단계 등의 4단계로 구분된다. 한편, 국내에서 개발된 김정근의 독서치료 과정이론은 치유적 책읽기, 치유적 글쓰기, 치유적 말하기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문헌정보학 분야프로그램 구성시에 독서치료 과정의 제이론을 적극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독서치료 효과를 실제 도서관, 학교, 시설기관, 상담소, 병원, 교도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연구가 발달적 또는 임상적 연구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독서치료 대상자와 직접 대면하는 사서와 상담자들에 의한 현장연구는 매우 부족한 반면에 교수에 의한 이론 연구는 비교적 풍부하여 다양한 현장성을 대변하지 못한 이론에 치우친 연구가 많다. 이를 위하여 현장전문가가 현장에서 체득한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별도의 장을 마련하거나, 현장전문가와 이론전문가가 팀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독서치료 연구의 학문 영역별 특성을 살펴보고, 그들의 강점을 문헌정보학 분야에 접목시킴으로써 문헌정보학 독서치료 연구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학술지에 수록된 130편의 논문을 전공영역별로 분석한 특성을 살펴보면, 문헌정보학에서는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에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었지만 비행, 사회성, 학업성취, 진로지도 주제 연구가 미흡하고, 성인, 주부, 노인 대상의 연구도 부족하였다. 실험연구 비율이 낮아서 연구방법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으며, 객관적인 통계분석방법에 의해 연구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특성을 가진 교육학에서는 심리테스트와 진단검사 등의 실험연구로 효과를 검증하고, T검정, 분산분석의 통계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과 함께 비행, 결손가정, 학업성취 연구가 자주 수행되었고, 노인과 대학생 대상 연구도 수행되었다. 한편, 유・아동학 분야에서는 초등생과 유치원생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관련 연구가 효과검증과 이론연구 형태로 수행되었으며, 실험연구와 문헌연구 형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우울증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효과검증 논문과 준비・자료선정 논문이 표준검사지의 측정도구와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실험연구와 함께 문헌연구가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의외이며, 통계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문학의 특성을 가진 문학에서는 자아존중감, 사회성, 우울증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청소년 대상의 효과검증 연구가 다수 시행되어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학생들에게 문학을 이용한 독서치료가 적절하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다른 영역과 달리 종교기관과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험연구와 질적연구를 많이 수행하였다. 한편, 종교분야에서는 우울증 환자의 행동변화를 위한 임상적 효과연구가 집단연구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문헌정보학 독서치료 연구의 보완점을 살펴보면, 독서치료 대상을 다양한 연령, 계층, 경험집단, 상황집단 등으로 확대하고, 독서활동 후 토론이나 역할극, 놀이치료, 시치료, 그림치료 등 독

후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검증된 진단검사 도구를 적극 활용·해석하는 능력을 키워 임상치료 등에 활용하고,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독서치료 결과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의 변화를 밝혀내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 심리학적 이론과 독서치료 과정이론을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하여 현장성과 이론을 조화롭게 접목시켜야 한다.

지난 60년간 우리사회의 경제성장을 위한 질주는 압축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후유증도 적지 않아서 개인의 인성과 정서는 피폐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사회가 불안정해 짐에 따라 마음을 치유하는 독서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독서치료학회, 한국독서교육학회, 대학부설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많은 기관에서 독서치료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으며, 관련 학문영역에서도 독서치료 연구가 다수 생산되었다.

문헌정보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공도서관 현장을 중심으로 독서치료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찍부터 이 분야 연구가 시작되었던 타 전공에 비하여 이론과 현장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론과 현장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타 분야의 축적된 치료과정 경험과 전략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독서치료 적용대상 및 적용현장의 다양화와 함께 심리학적 제 이론과 독서치료 과정이론, 독서치료자와 대상자간의 다양한 상호작용 과정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체득화해야 한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본격적인 독서치료 연구가 수행된 지는 오래되지 않지만 이 분야는 분명히 문헌정보학의 영역을 확대하는 불루오션이 될 것이다. 독서치료 실시 후 사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며, 사서 본인도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보고는 고무적인 현상으로서, 문헌정보학 연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1] 김갑선. 2007.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1984-2006.『독서문화연구』, 6: 153-187.

[2] 김욱준. 1999.『독서요법이 초등학생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3] 김정근. 2005. 독서치료의 현단계.『도서관문화』, 46(2): 46-49.

[4] 김춘경. 2000. 문학의 치료적 기능을 이용한 놀이치료: 독서치료를 중심으로.『놀이치료연구』, 4(2): 3-27.

[5] 김태경. 1985.『독서요법이 정신과 입원환자의 증상별 행동과 질병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6] 김현희. 2000. 아동을 위한 독서치료: 이론적 고찰.『어린이문학교육연구』, 2(1): 67-92.

[7] 김현희. 2004. 표현예술로서의 독서치료.『독서치료연구』, 1: 99-117.
[8] 김현희 외. 2004.『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9] 김현희 외. 2010.『상호작용을 통한 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10] 인형숙. 2008.『어린이를 위한 독서치료 연구의 국내 동향분석: 2001년-2007년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11] 장귀녀. 1985.『도서관 봉사로서의 독서요법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2] 장원영, 김재준. 1976. 학교도서관을 통한 부적응 학생지도에 관한 실천연구.『경북도협』, 3: 9-22.
[13] 정수연, 이명규. 2011. 초등학생 독서치료 프로그램 관련 학위논문의 동향분석: 2003-2010.『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317-333.
[14] 최선희. 1997.『아동의 자아개념과 인간관계 증진을 위한 독서요법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5] 최태산 외. 2006.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독서치료 관련논문을 중심으로(1988-2005).『놀이치료연구』, 9(1): 17-31.
[16] 한윤옥. 2003.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 상황설정 및 분류체계와 관련하여.『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1): 5-25.
[17] 황금숙. 2005a.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117-130.
[18] 황금숙. 2005b. 외국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2): 305-320.
[19] Doll, B. and Doll, C. 1997.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librarian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 Englewood, CO: Libraries Unlimited.
[20] Herbert, T. P. 1991. Meeting the affective needs of bright boys through bibliotherapy. In B. Doll and C. Doll. 1997.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librarian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 Englewood, Co: Libraries Unlimited.
[21] Hynes, A. M. and Hynes-Berry, M. 1994. *Biblio/Poetry therapy-the interactive process: a handbook.* St. Cloud. MN: North Star Press of Sbt. Cloud.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1] Kim, Kap Seon. 2007. "Research trend in the Korean theses of bibliotherapy: 1984-2006." *Reading Culture Research Institute Journal,* 6: 153-187.
[2] Kim, Uk-Jun. 1999. *Effects of bibliotherapy on the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 Thesis, Dong-A University.

[3] Kim, Jung Gun. 2005. "Current stage of bibliotherapy." *KLA Journal*, 46(2): 46-49.

[4] Kim, Choon-Kyung. 2000. "Play therapy using literature therapy: focusing on bibliotherapy." *The Journal of Play Therapy*, 4(2): 3-27.

[5] Kim, Tae-Kyung. 1985. *The effect of structured bibliotherapy on psychiatric inpatients' behavior and their prognosis*. MA.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6] Kim, Hyun-Hee. 2000. "Bibliotherapy with Children: A theoretical overview."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2(1): 67-92.

[7] Kim, Hyun-Hee. 2004. "The Bibliotherapy as the expressive art therapy." *Journal of Bibliotherapy Research*, 1: 99-117.

[8] Kim, Hyun-Hee et al. 2004. *Bibliotherapy*. Seoul: Hakjisa.

[9] Kim, Hyun-Hee et al. 2010. *Bibliotherapy for mutual interaction*. Seoul: Hakjisa.

[10] In, Hyung-Sook. 2008. *An analysis on the current trend of bibliotherapy study for young children in Korea based on the research papers from 2001 to 2007*. MA. Thesis, Chongshin University.

[11] Chang, Kuee Nyua. 1985. *A study on the adoptability of bibliotherapy as one of the library services*.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2] Chang, Won-Young and Kim, Jae-Jun. 1976. "Counseling for maladjusted students using school libraries." *KyungBuk LA*, 3: 9-22.

[13] Jung, Soo-Youn and Lee, Myoung-Gyu. 2011. "A trend analysis on the bibliotherapy program for elementaiy school students in Korea: 2003-2010."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317-333.

[14] Choi, Sun-Hee. 1997. *Effects of bibliotherap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social self-concepts and human relations*. MA.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5] Choi, Tae San et al. 2006. "The trends of bibliotherapy study in Korea:based on published articles about bibliotherapy(1988-2005)."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9(1): 17-31.

[16] Han, Yoon-Ok. 2003. "A study of the basic factors of bibliographic tool for the bibliotherap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1): 5-25.

[17] Hoang, Gum-Sook. 2005a.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36(1): 117-130.

[18] Hoang, Gum-Sook. 2005b.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in oversea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2): 305-320.